

나갈듯 말듯 시간 끌다가... 피의자 이미지 부담 “실익 없다” 판단

현재 탄핵심판 오늘 최종변론... 박대통령 불출석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통령으로 재판정에 선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부당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현재에 나갈 경우 피청구인이 아닌 피의자와 같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출석시 현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런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현재에 최후 진술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더라도 최종준비 서면을 통해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박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재가 불공정하게 탄핵심판

‘탄핵 속도전’ 항의의 뜻도

특검 대면조사 거부 이어

법 절차 무시 비판 거셀 듯

을 진행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 측 인식도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기일 조정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전을 하면서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탄핵심판 일정을 몰아가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 현재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의 불출석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이 현재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이 지명될 것이라 보도가 나오자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달리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최종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이어 현재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법 절차는 무시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현재 불출석을 결정할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현재에 나가지 않으면서 현재가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추가 여론전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만 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박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메시지 없이 탄핵심판 결과를 보게 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특검 연장 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의원 등이 2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학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특검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될까... 이정미 재판관 후임 하마평 무성

함평 출신 강형주, 광주 출신 이은애 등 거론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하마평이 나온다.

26일 대법원 안팎에 따르면 차기 재판관으로 불망에 오르는 인물들은 주로 고위직 법관들이며 여성 법관의 이름도 상당수 오르내린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강형주(58·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다.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도 유력 후보다.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역시 법원 내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여성 후보군에서는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가 꼽힌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례시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2년 현재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를 제외하고 법정을 떠나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지난해 대법관 제정 후보 4인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여미숙(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재직 한 헌법이론 전문가인 유남석(60·13기) 광주고등법원장, 역시 4년간 현재에 파견 근무했으며 법원 내에서 독일법 전문가로 꼽히는 장석조(56·15기) 전주지방법원장 등도 주요 후보군이다. /연합뉴스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범 자수

20대 남자... 경찰, 현재 재판관 이어 특검팀 신변보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다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이같은 게시글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수사가 게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 글을 통해 “이정미가 판

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실제로 위해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게 22일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해 신변보호 중이다.

한편 경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찰이 오후부터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경호 인력은 주거지와 사무실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호남 지지 없인 경선 승리 없다”

안희정 24~25일, 26일 안철수 부인, 이재명 27일, 문재인 3월초 다시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호남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는 호남을 공략하지 않고는 경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 후보 경선이 점차 가열되면서 결국 호남의 선택이 전국 지지 판세를 가늠할 것이라는 판단에 주자들의 호남행이 잦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해 총선 ‘녹색돌풍’의 진원지였던 호남에서 대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경선에 나선 주자들에게 호남의 비중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당 주자들의 호남 표 발걸음은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월초 광주·전남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여수·광양·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두루 훑는 일정을 소화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에도 대담과 토론을 진행하고 지역인사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보

인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남·북을 누볐고 이재명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2박3일간 호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안 지사는 1박2일 호남 방문을 통해 보성·순천·여수, 전주 등을 찾으며 지지율 반응을 꾀했다. 최근 ‘선한 의지’ 발언으로 돌아선 호남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안 지사는 “선한 의지 발언으로 아내에게 하루 종일 깨졌다. 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해를 사느냐(혼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역사, 기적 같은 노무현의 정권 재창출 역사를 이어받아 이제 대선투표에서 대표하는 날 아랫목에 두 다리 쭉 뻗고 대표광송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강력한 정권교체 카드가 안희정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27일부터 2박3일 광주와 목포를 오가는 행보를 한다. 기자간담

회, 시민단체와의 만남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전주를 찾아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축산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전주를 방문한 지 8일 만인 이날 다시 26일 익산을 찾았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천주교 함열교회를 찾아 미사에 참석한 데 이어 한센인들과 식사를 함께한 다음 요양병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익산여성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방문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6일만인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 지지자들과 모임을 하고 호남 지지층 확산에 주력했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는 27일 오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합동 연수에도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